

경주 남산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 연구

이희진

울산대곡박물관 학예연구사, 불교조각사 전공

maitreya@korea.kr

I. 머리말

II. 용장사지의 내력과 유물의 현상

III. 석조여래좌상의 특징과 제작 시기

IV. 도상 문제

V. 맷음말

I . 머리말

경주 남산 금오산에 위치한 용장사지(葺長寺址)는 『삼국유사』 권4 「의해(義解)」 제5〈현유가, 해화엄(賢瑜珈, 海華嚴)〉조에 등장하는 통일신라시대의 사찰이다.¹⁾ 삼국유사에는 경덕왕대(景德王代, 재위 742~765) 용장사 승려 태현(太賢)과 미륵장육상(彌勒丈六像)에 대한 내용이 있어 용장사가 8세기 중엽경의 사찰임을 알 수 있으며, 1920년 ‘용장사(葺長寺)’라는 명문기와가 발견된 바 있다.

현재 절터에는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보물 제187호), 마애여래좌상(보물 제913호), 삼층석탑(보물 제186호) 등이 남아 있으며, 이 유물들은 8세기부터 9세기에 해당되는 작품들로서 조형적으로 우수한 통일신라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독특한 형식의 삼륜대좌 위에 안치된 석조여래좌상은 독특한 수인과 대좌 형식, 『삼국유사』 기록에 언급된 장육미륵상과의 관련성 등 연구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으나 형식 및 양식적인 특징, 도상(圖像) 검토 등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은 편이다.²⁾

용장사지에 대한 조사는 1924년에서 1926년까지 조선총독부에 의해 경주 남산 조사가 실시되면서 이루어졌다. 보고서는 10년에 걸쳐 조선고적위원회(朝鮮古蹟委員會)를 중심으로 1940년에 간행되었고, 1994년 『경주 남산의 불적(慶州南山の佛蹟)』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조사는 1982년부터 1995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수행한 ‘남산유적 탐재조사 및 사지조사와 이에 대한 보고서 출간’이다. 그리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경주 남산 석탑 발굴·복원 정비 보고서』, 『경주 남산 석조문화재 정밀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용장사지뿐만 아니라 남산의 불교미술

-
- 1) 마을에서 용장계를 따라 4시간 정도 올라 용장골을 지나면 고위산과 塔上谷으로 접어드는 삼거리 이정표가 있다. 이곳을 지나면 넓은 송림과 함께 서북편으로 개울물이 흐르는데, 오른쪽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雪岑橋를 지나면 용장사지로 오르는 가파른 길이 나타나고, 350m 거리를 20여 분 오르면 용장사지 맨 아래부분에 도착하게 된다.
 - 2) 용장사지의 불교조각사 관련 연구로는 文明大 先生의 「太賢과 萩長寺의 佛敎彫刻」(『白山學報』 17, 1974. 12, 113~159쪽)가 유일하다. 이 논문에서는 용장사의 두 불상을 미륵보살과 아미타불상으로 판단하여 통일신라 8세기의 대표적인 법상종의 미술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金理那 先生의 「統一新羅의 降魔觸地印佛坐像」,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一潮閣, 1997), 356~357쪽과 姜友邦 先生의 「慶州 南山論」, 『圓融과 調和』(열화당, 1996), 406~408쪽에도 용장사지 조각상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풍부한 기초자료에 비해 남산에 산재해 있는 불교조각들의 구체적인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 글에서는 용장사지와 불상에 대한 내력과 현상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석조여래좌상의 특징과 제작 시기 그리고 도상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보자 한다.

II. 용장사지의 내력과 유물의 현상

1. 내력

용장사 창건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삼국유사』 권4 「의해」 제5 <현유가, 해화엄>조에 최초로 등장한다.

유가종(瑜伽宗)의 조사(祖師) 고승 대현(大賢)³⁾은 남산 용장사에 살았다. 그 절에는 돌로 만든 미륵장육상이 있었다. 대현이 항상 이 장육상을 돌면 장육상도 역시 대현을 따라 얼굴을 돌렸다. [...] 경덕왕 천보 12년 계사(天寶 十二年 癸巳, 753) 여름에 가뭄이 심하니 대현을 대궐로 불러들여 『금강경(金剛經)』을 설(講)하여 단비를 빌게 하였다.⁴⁾

이 내용을 통해 용장사의 창건 시기는 경덕왕대 전후로 추정되며, 유가종 조사 태현은 경덕왕대에 살았던 유가유식계(瑜珈唯識系) 승려임을 알 수 있다. 유가사상은 8세기 전반 경홍(景德)을 통하여 신라사회에 널리 알려졌다.⁵⁾ 경홍은 웅천사람(熊川人: 현재의 公州)이며 문무왕의 유언으로 신문왕의 국노(國老)가 된 백제의 유민이다.⁶⁾ 이후 유가종은 8세기 전반 신라사회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전개되었다. 유가계 불교는 신라 왕실과 깊은 관련성을 보이는 점이 특징인데, 문무왕대

3) 『삼국유사』에서는 大賢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太賢과 동일 인물이다.

4) 이민수 옮김, 『三國遺事』(을유문화사, 1996), 431쪽. “瑜伽祖大德大賢，住南山葺長寺。寺有慈氏石丈六。賢常旋繞。像亦隨賢輪面 [...] 景德王天寶十二年癸巳，夏大旱，詔入內殿，講金光經。以祈霖。” 『三國遺事』 <賢瑜伽，海華嚴>條。

5) 金福順, 「8·9세기 신라瑜伽系佛教」, 『韓國古代史研究 -8·9세기의 新羅와渤海-』 (한국고대사연구회, 1992), 37-38쪽.

6) 『三國遺事』 卷5, <景德遇聖>條.

지의법사(智義法師)가 문무왕 곁에서 자문을 하고, 효소왕대에는 도증(道證)이 당에서 돌아와 천문도를 바치기도 하였다.⁷⁾ 도증은 원측(圓測)의 제자이고 태현은 그 제자이다.⁸⁾ 이들에 의해 원측의 서명학과계 유식사상이 신라에서 유행하게 된다. 태현은 표훈(表訓)⁹⁾과 함께 경덕왕대 최고의 승려로서 『성유식론학기(成唯識論學記)』 등 많은 유가유식 계통의 저술로 명성을 떨쳤으며, 대궐에서 『금광명경(金光明經)』을 강경하였다.¹⁰⁾

용장사는 조선시대의 기록에도 등장한다. 『동경잡기(東京雜記)』에는 “금오산에 있다(在金鰲山)”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용장사는 금오산에 있다. 시승 설잠(詩僧 雪岑)이¹¹⁾ 일찍이 절을 짓고 살았다”라고 하였다.¹²⁾ 그리고 『경주읍지』에서는 “용장사는 금오산에 있고, 자씨석장육상(慈氏石丈六像)이 있다. 경덕왕 때 창건하였고, 현유가(賢瑜珈) 스님이 이 절에 주지로 머물렀다. [...] 설잠 스님이 일찍이 옛 터에 절을 짓고 살았는데…….”¹³⁾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매산선생문집(梅山先生文集)』¹⁴⁾에서도 “10월 7일 금오산 매월사에 방문했는데, 용장사가 있는 산이다”¹⁵⁾라고 쓰여져 있다.

즉, 용장사는 19세기 초반까지 그 사세(寺勢)가 유지되었으며, 통일신라 경덕왕대 전후부터 조선 말기까지 1,000년 가까이 유지된 사찰이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1920년 가을 이시가와 에쓰조(石川悅三)가 금오산 인근

7) 『三國史記』 卷8, 〈孝昭王元年八月〉條.

8) 『三國遺事』 卷3, 〈南月山〉條.

9) 표훈은 통일신라 대표적인 화엄사상 승려인 義湘의 십대 제자로 경덕왕대에 활동한 인물이며, 경덕왕의 소원을 들어주어 만월부인이 해공왕을 낳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표훈은 경덕왕의 전제왕권 유지에 많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郭丞勳, 「下代 前·後期의 政治變動과 菩勒下生信仰」, 『統一新羅時代의 政治變動과 佛教』(國學資料院, 2002), 192쪽.

10) 文明大 선생은 道證에서 太賢으로 이어지는 법상종을 신라법상종 또는 유가종으로 부를 수 있고,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까지는 이 宗이 성립하였을 것으로 보았다(『新羅法相宗의 成立과 그 美術(下)』, 『歷史學報』 63, 1975, 153~156쪽). 그러나 金福順 선생은 신라의 법상종은 경덕왕대 眞表에 의해 성립되어 일반인에게 널리 전파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라의 유가불교는 西明學派의 祖인 圓測, 신라 瑜珈祖인 太賢, 신라 法相宗의 祖인 眞表로 대변할 수 있다고 하였다(『신라 유가계 불교 -8·9세기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불교사 연구』, 민족사, 2002, 173~179쪽).

11) 雪岑의 俗名은 金時習(1435~1493)이다.

12) 舊在金鰲山, 詩僧雪岑(梅月堂) 詧構寺於舊址居.

13) 茱長寺 舊在金鰲山 有慈氏石丈六像 景德王時所創 釋賢瑜珈住此寺 [...] 詩僧雪岑(梅月堂) 詧構寺於舊址居.

14) 梅山은 洪直弼(1776~1852)의 호로 조선 후기 학자이다.

15) 『梅山先生文集』 卷一. “十月七日, 訪梅月祠于金鰲山, 山有茱長寺…….”



도1-용장사 명문 평기와
『경주남산』 특별전 도록, 국립경주박물관



도2-용장사지 전경(1920년대)
『慶州南山의 佛蹟』

인 현재의 절터에서 ‘용장사’라는 명문 기와를 발견하게 되었고(도1)¹⁶⁾,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용장사지’로 명명되었다(도2).¹⁷⁾

2. 유물의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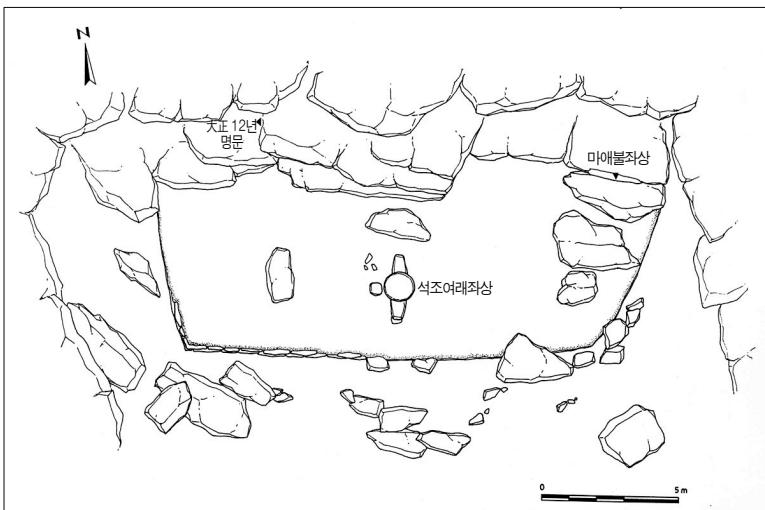
용장사는 동서로 약 42m, 남북으로 약 25m 정도 사역(寺域)에 크고 작은 9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도3). 이곳에는 불상 2구가 있는데



도3-용장사지 전경(1920년대)(『경주남산』 특별전 도록, 국립경주박물관)

16) 大坂金太郎, 「慶州に於ける新羅廢寺址の寺名推定た就て」, 『朝鮮』(朝鮮總督府, 1931), 81-82쪽.

17) 朝鮮總督府, 『慶州南山の佛蹟』(悅話堂, 1994), 50-54쪽; 국립경주박물관, 『南山特別展圖錄』(1995), 38쪽; 國立文化財研究所, 『慶州南山의 佛教遺蹟 II -西南山 寺址調查報告書-』(1997), 69-70쪽.



도4-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현황도(경주남산의 불교유적 II-서남산 사지조사보고서)

보물 제187호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과 보물 제913호 마애여래좌상이다. 먼저,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은 서쪽 아래 건물지에서 동쪽으로 60m 정도의 위치에 서향으로 위치하고 있다(도4).

석조여래좌상의 서남쪽 바위 남면에는 가로 58cm, 세로 142cm 크기에 ‘三層石塔大正十二年爲益所倒壞 三層佛塔大正十二年春爲益所倒壞 小石塔殘部 又大正十三年春再建朝鮮總督府’라는 내용의 명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이 명문은 ‘1923년 삼층석탑과 함께 넘어져 있던 불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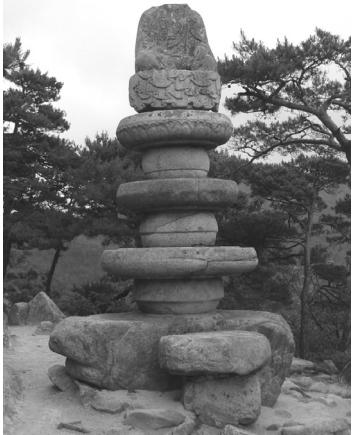


도5-1923년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의 모습 (『慶州南山의 佛蹟』)

1924년 봄 조선총독부에서 복원해 세웠다¹⁸⁾라는 내용이다(도5). 즉, 불상이 192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복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당시 현재 3층 연화문 원형 판석이 2층에 놓여 있어 1923년 이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무너져

다시 세워진 것도 확인된다. 이후

18)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보고서에는 대정 12년(1923)에 무너진 불상과 삼층석탑을 그 해 가을에 다시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朝鮮總督府, 위의 책, 53쪽. “大正十二年倒壞の災に遭ふたが其秋三層石塔と共に復建した。然るに昭和七年再度破壊せられので、同年十一月に至り復舊して現在舊觀を保つてゐ。”



도6-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 보물 187호, 총 높이 350cm



도7-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 대좌 세부

1932년에 또다시 무너졌으며 같은 해 11월 복원되었다.¹⁹⁾ 현재의 모습은 1932년 복원된 모습이다.²⁰⁾

현재 석조여래좌상은(도6) 하대석을 249cm×136cm×106cm의 자연석으로 가공하여 지름 117.3cm 괴임을 만들고 둥근 몸돌을 원형 판석 사이에 3층으로 올린 특이한 형식의 삼륜대좌(三輪臺座)를 갖추고 있다(도7). 몸돌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축소되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그 위에는 세 겹의 올림연꽃으로 구성된 대좌 위에 결가부좌(結跏趺坐)의 여래상이 있다(도8). 하대석을 제외한 전체 높이는 3.50m이며, 대좌는 2.091m, 불상은 1.41m이다.

석조여래좌상은 현재 머리가 없어졌으며, 수인은 오른손은 위로 펴서 아래배 앞에 올려놓고 왼손은 왼쪽 무릎에 살짝 올려놓았다.²¹⁾ 편삼(偏衫) 위에 편단우견(偏袒右肩)의 대의를 입고 왼쪽 어깨에는 매듭띠가 묶여져

19) 朝鮮總督府, 위의 책, 53쪽. “尤も本石像はその以前早く一度倒壊したものであることは大正十一年以前に於て三層蓮臺の二層目を倒置し。”

20) 國立文化財研究所, 앞의 책, 72쪽.

21) 文明大先生은 항마촉지인의 오른손과 왼손을 바꾸어 표현한 것이 아니라 상의 성격이 보살상임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였다(앞의 논문, 1974, 126쪽). 하지만 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보살상에 나타나는 천의 표현이나 영락장식 등 보살상의 특징은 보이지 않아 보살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도8-1-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 앞면



도8-2-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 뒷면



도8-3-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 왼손

있으며 두 줄의 끈은 무릎 아래까지 늘어졌고 그 끝에는 수술이 달려 있다. 가슴에는 왼쪽 어깨에서 내려오는 승각기(僧脚崎)와 이를 묶은 매듭이 보인다. 대의 옷자락은 길게 내려와 대좌를 덮은 상현좌(裳懸坐)를 이루며 뒷모습에서는 올림연꽃 대좌(仰蓮臺座)가 확인된다. 연꽃대좌는 같은 크기의 연잎

이 삼단으로 균일하게 표현되어 있다. 현재 여래상의 앞면과 뒷면에는 전체적으로 이끼류가 몇 겹으로 덮여 있어 세부적인 옷 주름을 알아보기는 어렵다(도8). 특히 왼손을(도8-3) 보면 이끼류들의 백화현상으로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 같은 모습이다. 이끼류의 번식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으로 보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석조여래좌상 뒤쪽 약 10m 정도 떨어진 바위 남면에 위치한 높이 1.62m 낮은 돌을새김의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 마애여래좌상이다(도9). 여래상은 얼굴에 비해 어깨가 넓고 몸이 길며,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광배는 두광과 신향이 각각 2줄로 표현되어 있다. 여래상의 육계는 낮고 넓은 편이며 얼굴은 탄력감 없이 쳐진 모습으로 볼륨감은 다소 떨어진다. 목은 짧고 삼도의 표현은 목 아래까지 내려와 있다. 양쪽 팔은 곧게 내려놓은 느낌이며, 다리는 오른쪽 발을 왼쪽 허벅지 위로 올린 결가부좌를 하고 있으며, 다소 경직된 모습이다.

마애여래상의 특징인 2중 광배와 낮고 넓은 육계, 목이 짧고 목 아래까지 내려온 삼도의 표현은 대구 동화사(桐華寺) 입구 마애여래좌상과



도9-1-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慶州南山의 佛蹟』)



도9-2-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보물
913호, 높이 162cm(2013년 촬영)

경북 예천 청룡사(青龍寺) 석조여래좌상과 유사하다(도10, 도11). 또한 수평으로 곧게 결가부좌한 다리 표현과 낮고 얕게 표현된 대좌의 연화문 조각수법도 비교된다.



도10-동화사 입구 마애여래좌상, 보물
243호, 9세기, 높이 106cm
(국립대구박물관 제공)



도11-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424호, 9세기, 높이 93.5cm
(『석불 들에 새긴 정토의 꿈』)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얼굴	동화사 입구 마애여래좌상 얼굴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얼굴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대좌	동화사 입구 마애여래좌상 대좌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대좌

삽도1-얼굴과 대자 표현 비교



도12-경주 남산 보리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136호,
8세기 후반, 높이 266cm



도13-경주 함월산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보물 581호,
9세기, 높이 400cm

착의법은 편삼 위에 편단우견의 가사를 걸쳤는데 아래로 흘러내린 옷 주름은 균일한 층단형으로 8세기의 작품으로 알려진 경주 남산 보리사 석조여래좌상과 비슷하다(도12). 그런데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은 경주 남산 보리사 석조여래좌상에 비해 신체 볼륨감이 없는 일정한 층단형 옷 주름으로 다소 평면적이면서도 경직된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옷 주름은 경주 함월산 골굴암(含月山 骨窟庵) 마애여래좌상과 더 비슷한데(도13), 경주 함월산 골굴암 마애여래좌상의 옷 주름이 용장사지 마애여



도14-1-용장사지 삼층석탑, 보물 186호, 9세기 초, 총 높이 450cm

하고 있다. 오래전 무너져 있던 석탑은 1923년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과 함께 복원되었는데, 당시 2층 옥신 상부의 한 변에 15.2cm×13.1cm의 사리공이 있었다고 한다.²³⁾

용장사지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 전형석탑 형식을 따른 것인데, 하층기단을 생략하고 암반 위에 상층기단을 세워 마치 남산 전체를 하층기단으로 하고 있는 듯 특이하다. 석탑의 상층기단 각 면은 2개의 판석으로 세우고 양쪽의 우주와 가운데 탱주 1개를 모자하였으며(도14-2), 옥개석의 옥개받침도 4단이다. 이는 통일신라 8세기 후반 석탑의 상층기단의 탱주가 2개이고 옥개받침도 5단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된다(도14-3). 따라서 석탑의 제작연대는 신라 하대인 9세기로 추정된다.²⁴⁾

래좌상보다 좀 더 딱딱하고 일률적이다. 따라서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은 8세기 경주 남산 보리사 석조여래좌상과 9세기 경주 함월산 골굴암 마애여래좌상의 중간 정도에 제작된 9세기 초의 작품으로 추정된다.²²⁾

마지막 작품은, 용장골에 들어서면 어느 위치에서도 보이는 용장사지 삼층석탑(보물 제186호)이다(도14). 이 석탑은 용장사를 감싸고 뻗은 동쪽 바위산맥 위에서 가장 높은 곳의 암반 위에 위치

22) 문명대 선생은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의 경우 8세기 중엽의 사실주의 양식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과 같은 시기인 8세기 2/4분기로 추정하였다(앞의 논문, 1974, 134-135쪽); 강우방 선생은 大衣 전면에 걸친 충단 옷 주름만 보면 統一期 후반의 형식을 연상시키지만, 전체적인 양식은 역시 統一盛期의 作風으로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과 동시기라 추정하였다(앞의 논문, 1996, 407쪽); 김리나 선생은 불상의 전체적인 비례로 보아 균형이 잡혀 있고 結跏趺坐한 넓은 무릎에서 안정감을 주고 있으나 나지막한 육계나 굽은 나발 표현, 그리고 밀집된 옷 주름선 등은 역시 新羅 下代의 조각에서 보이는 표현에 가깝게 느껴진다고 하였다(앞의 논문, 1997, 357-358쪽).

23)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94, 51-53쪽.

24) 國立文化財研究所, 앞의 책(1997), 70-73쪽; 韓國佛教研究院, 『新羅의 弊社 II』(1940), 51-53쪽; 慶州郡, 『文化財 慶州』(1990), 35-36쪽.



도14-2-용장사지 삼층석탑 기단부



도14-3-용장사지 삼층석탑 옥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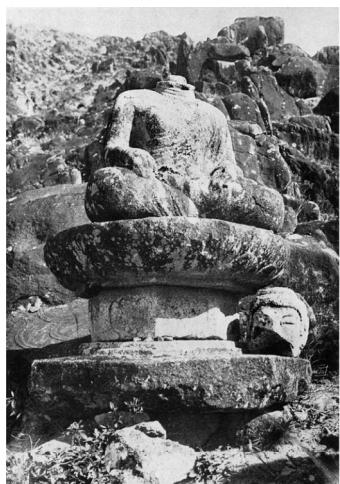
III. 석조여래좌상의 특징과 제작 시기

석조여래좌상은 돌로 쪼아 만든 불상으로 몸체와 대좌를 별도로 제작하였다. 현재는 머리가 없는 상태이지만 목 부분의 부러진 상태(도15)에서 하나의 돌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도16)과 같이 신체와 얼굴을 따로 제작하여 끼우는 통일신라시대 석조여래상의 일반적인 제작기법과는 차별된다.

석조여래좌상은 어깨 폭이 좁고, 팔과 손,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크고



도15-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 목 부분



도16-1-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朝鮮古蹟圖譜』)



도16-2-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목 부분



도16-3-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머리 밑부분

굵게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신체비례를 보인다(도17). 이러한 비례감은 722-731년 조성된 경남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과 비교되는데(도18)²⁵⁾, 두꺼운 양감과 단구의 신체, 편삼 위에 편단우견 대의를 착용한 착의법 등도 비슷하다. 그러나 옷 주름 등 세부 조각수법은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이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편이다.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은 승각기 띠매듭과 왼쪽 어깨에서부터 무릎



도17-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 중 여래좌상
(2001년 촬영)



도18-경남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
좌상, 8세기 전반, 보물 295호, 320cm

25)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의 대좌에는 “開元十...」月廿五...」成...”이라는 명문이 기록되어 있어서 제작 시기는 722-731년(開元十年-十九年)임을 알 수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II 자료집』(문화재청 ·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334-335쪽.

아래까지 내려오는 가사끈, 오른쪽 무릎 밑으로 늘어진 역삼각형의 대의자락, 대좌 밑에까지 흘러내린 상현좌가 특징이다. 승각기 띠매듭은 띠를 위로 잡아 당겨 묶어 고정한 형태로서 백률사(栢栗寺) 금동약사여래입상과 경주 남산 삼릉계 목 없는 석조여래좌상과 비교된다(도19, 도20, 도21). 이 세 구의 불상은 띠를 묶는 세부 모습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실제 묶은 것처럼 자연스러운 표현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도19-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 매듭 세부



도20-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 국보 28호, 8세기 후반, 높이 177cm
『국립경주박물관 명품 100선』



도21-경주 남산 삼릉계 목 없는 석조여래좌상, 8세기 후반-9세기 초, 높이 160cm
『정은우 제공』

승각기 띠매듭은 7세기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9세기까지 계속 등장하는데(삽도2) 8세기에는 매듭이 옆으로 치우치고 깃 부분도 도톰하여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8세기 후반 이후에는 세밀하고 장식성인 경향 등의 차이를 보인다.

7세기	8세기 중엽	8세기 후반	8세기 후반-9세기 초	9세기

삽도2-시기별 승각기 띠매듭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약사여래좌상, 8세기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	삼릉계 목 없는 석조여래좌상, 8세기 후반 - 9세기 초	동화사 입구 마애여래좌상, 9세기	경남 합천 천가야산 마애여래입상, 9세기	

삽도3-시기별 가사 끈매듭

두 번째는 가사를 묶은 띠매듭의 표현으로 어깨 아래에서 한 번 묶은 후, 두 줄의 띠가 왼쪽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고 끝에는 수술 장식으로 마무리되어 있다(도19).²⁶⁾ 여래상의 가사끈 매듭은 8세기 대에 처음 등장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승각기 띠매듭과 볼륨감의 표현과 장식성에서 비슷한 변화를 보인다(삽도3).

세 번째 특징은 오른쪽 무릎 앞에 역삼각형 모양으로 늘어진 대의 자락이다. 이는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과 남산 삼릉계 목 없는 석조여래좌상 등 현재 세 구에만 등장하는 것으로 경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적인 요소이다(삽도4). 세 구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의 옷자락이 접히는 것처럼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 국립중앙박물관, 8세기 후반	삼릉계 목 없는 석조여래좌상, 8세기 후반-9세기 초

삽도4-역삼각 형태의 대의 자락

26) 이 외에도 어깨 가사끈 매듭이 표현된 것은 芬皇寺 石彫佛像群 중 藥師如來坐像과 大邱 桐華寺 입구 磨崖如來坐像에서도 보인다. 이러한 着衣 형식은 대체로 통일신라 후기에 유행하여 중국에서 隋代의 像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金理那, 앞의 논문, 1997, 356쪽.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 상현좌	금강봉사 목조 제존불감 본존불 상현좌	송광사 목조불감 본존불 상현좌

삽도5-상현좌 비교

네 번째는 몇 겹의 주름을 형성하며 대좌를 덮은 상현좌로서 바람에 훌날리듯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상현좌는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여 통일신라 말까지 계속 등장하는 요소로서 7세기 후반의 군위 석조삼존여래좌상의 본존상과 706년의 경주 황복사지(皇福寺址) 3층석탑에서 발견된 금제여래좌상, 9세기작인 대구 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冠峰石造如來坐像)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들과의 유사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오히려 가장 비슷한 사례는 중국 당대의 불상들이다. 당대 8세기 작품인 금강봉사 목조 제존불감(金剛峯寺 木造 諸尊佛龕)과 전남 순천 송광사(松廣寺) 소장 목조불감(木造佛龕)의 본존불 상현좌와 비교된다(삽도5).

특히 양쪽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옷 주름과 그 아래쪽으로 몇 겹의 치맛자락이 길게 내려와 대좌를 덮고 있는 모습과 바람에 훌날리는 것 같은 전체적인 표현에서 유사성을 보인다(삽도4). 차이점도 발견되는데 중국 당대의 금강봉사와 송광사의 상은 목조인데도 옷 주름이 딱딱하고 날카로운 반면,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의 상현좌는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에서 좀 더 진전된 느낌을 준다.

상현좌로 덮인 대좌는 뒷면을 통해 확실하게 보이는데 삼단으로 균일하게 보이는 올림연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대좌 형식은 송광사 목조불감의 삼단연꽃대좌와 비교되며 더욱 유사한 작품은 772년으로 추정하기도 하는 경상남도 창녕 관룡사 약사전 석조여래좌상²⁷⁾의 대좌이다(삽도6).

27) 최근 조사에 의하면 관룡사 약사전 석조여래좌상 대좌에 '大□七年.....'의 명문이 확인 된다고 하며, 이는 大曆年間(766-779), 즉 772년에 해당된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334쪽.

송광사 목조불감 본존불 대좌 울림연꽃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 대좌 울림연꽃	관룡사 약사전 석조여래좌상 대좌 울림연꽃

삼도6-대좌 연꽃 비교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에 표현된 가장 우수한 조형성은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옷 주름의 표현으로 마치 실제 접은 듯 부드럽다. 이러한 자연스러움은 719년의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장기 흑뢰관음당(長崎 黑瀨觀音堂) 금동여래좌상 등에서 보이는 것으로 9세기와 구별되는 통일 신라 8세기의 특징으로 판단된다(삼도7).

지금까지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의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8세기 전반기 설과 중엽, 또는 9세기 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 바 있다.²⁸⁾ 그러나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719년	장기 흑뢰관음당 금동여래좌상, 통일신라, 8세기 중엽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8세기 후반	보림사 철조비로자나여래좌상, 858년

삼도7-옷 주름 비교

28) 文明大先生은 양식적으로 형태나 선 등에서 석굴암 불상군의 감실상과 유사하고 대좌와 상현좌 옷 주름 표현 등에서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및 금동아미타여래좌상과 공통점이 발견되므로 조성 시기는 8세기 2/4분기로 추정하였다(앞의 논문 1974, 134쪽); 秦弘燮先生은 조성 시기를 9세기로 추정하였다(『韓國의 佛像』, 一志社, 1992, 248쪽); 姜友邦先生은 조성 시기를 신라 最盛期로 추정하였다(앞의 논문, 1996, 407쪽);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승각기 매듭, 원쪽 어깨에서 내려오는 가사끈 매듭, 오른쪽 무릎 아래로 내려온 역삼각형 대의 자락, 상현좌 그리고 부드러운 옷 주름 등 세부 표현의 고찰을 통해 통일신라 전성기에 해당하는 8세기 중엽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는 722-731년(開元十年-十九年)으로 추정되는 창녕 관룡사 용선대 불상과의 유사성, 그리고 772년으로 추정하고 있는 관룡사 약사전 석조여래좌상의 대좌 구성과의 관련성에서도 확인된다. 이 외에도 경주지역의 불상에만 나타나는 무릎의 역삼각형 옷자락이라든지 옷 주름의 표현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IV. 도상 문제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은 삼륜대좌 위에 앉은 형식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도상의 작품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삼국유사』 권4 「의해」 제5 〈현유가, 해화엄〉조에 쓰여진 태현과 용장사 미륵장육상을 통해 어느 정도 도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또 태현이 경덕왕대 용장사에 있었던 승려라는 점에서 기록에 의한 작품의 제작 시기도 추정이 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의 도상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의 존상 명칭에 대한 연구는 미륵보살상으로 보는 의견 정도이다(표1).²⁹⁾ 이는 『삼국유사』 권4 「의해」 제5 〈현유가, 해화엄〉조에 보이는 미륵장육상(彌勒丈六像)³⁰⁾에 의거한 것이다.

金理那 先生은 용장사 석조여래좌상의 착의법은 통일신라 후기에 유행하였고, 조각수 법은 부드럽고 자연스럽지만, 신체 윤곽이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비례에서 볼 때 통일신라 전성기 조각으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하였다(앞의 논문, 1997, 356-357쪽).

29) 文明大, 앞의 논문(1974), 135-140쪽.

30) 『삼국유사』에 언급된 미륵장육상과 관련하여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을 丈六像과 비교해 볼 때, 1척의 크기를 唐尺으로 비정해 보면, 1척은 29.694cm로 미륵장육상의 높이는 29.694cm×16=475.104cm로 약 475cm가 된다. 현재 석조여래좌상의 총 높이는 350cm로 125cm(475cm-350cm) 차이가 난다. 여기에서 결실된 목과 머리를 약 70cm로 추정하여 추가하면 약 420cm인데 미륵장육상의 높이와는 약 55cm 차이가 난다. 그러나 미륵장육상이라는 것은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서 『삼국유사』에 기록된 상과 같은 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1-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의 존명

구분	보살상	여래상	미륵여래상	미륵보살상	출처
고유섭	○				『韓國塔婆의 研究』, 考古美術同人會, 1968
진홍섭		○			『韓國의 佛像』, 一志社, 1992
문명대	○			○	『太賢과 莱長寺의 佛教彫刻』, 『白山學報』, 제17호, 1974
김리나		○			『統一新羅時代의 降魔觸地印佛坐像』,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1997
강우방		○			『南山論』,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6

도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인인데 이 불상은 오른손은 배 앞에 두고 손바닥을 위로 하여 선정인을 하였으며, 왼손은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은 일반적인 여래좌상의 수인과는 반대 모습이다(도22).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문 형식이지만 중국의 경우 서위대(西魏代)에 조성된 황택사(皇澤寺) 제27감 석조여래좌상(도23)과 북주대(北周代)에 조성된 수미산(須彌山) 제46굴 석조여래삼존상에서 처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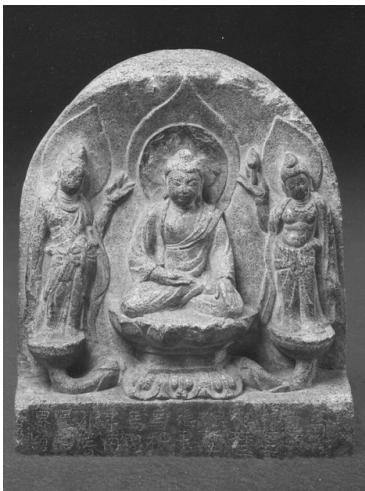
이후 경복원년명(景福元年銘, 892) 석조아미타여래삼존상(도24)과 병령사석굴(炳靈寺石窟) 제54감 석조아미타삼존상 등 당대의 불상에 존명과 함께 등장한다(도25). 당대에 들어 아미타상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양한 불상에 등장하는 손 모습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인만으로 존명의 확인은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미륵의 경우에도 같은 수인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도22-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



도23-황택사 제27감 석조여래좌상,
서위(『中國佛教雕塑』)



도24-경복원년명(892) 석조아미타여래삼존상, 대만역사박물관(『中國美術全集』)



도25-병령사석굴 제54窟 석조아미타삼존상, 당(『中國美術全集』 조소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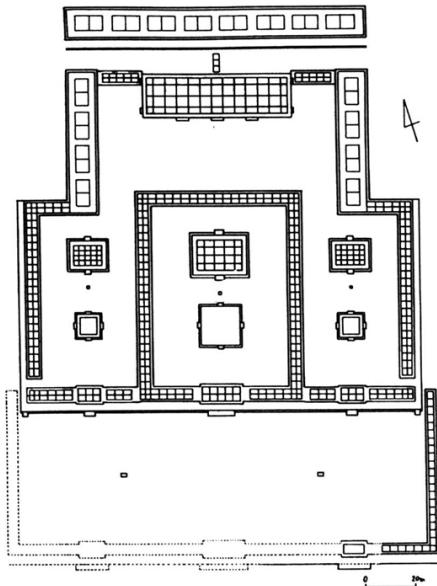


도26-실상사 삼층석탑 상륜부

다음은 대좌 몸돌의 형상이다. 앞서 언급한 『삼국유사』에는 장륙상이 태현의 얼굴을 따라 돌렸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는 원형의 대좌 형식과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이 원형 대좌는 삼륜(三輪)대좌라고 부르는데 윤(輪)이 등근 형태를 상징하기 때문이다.³¹⁾ 석탑이나 승탑의 상륜부 장식 중에서도 등근 판석을 보륜(寶輪)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도26).

이러한 대좌 구조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거의 없는 독특한 형태이다. 3층으로 구성된 대좌에 대해서는 『불설미륵하생경(佛說彌勒下生經)』 중 용화 3회 설법 장면과 『불설미륵대성불경(佛說彌勒大成佛經)』 중 미륵이 하생하여 3회 설법 이후 시두말성(翅頭末城)으로 들어와 여덟 가지 신통력을 보이는 장면이 연상된다.

31) 삼륜대좌라는 명칭은 文明大, 「太賢과 菩長寺의 佛教彫刻」(1974), 姜友邦, 「南山論」(1996)에서도 사용되었다.



도27-의산 미륵사지 평면도

그때 미륵부처님의 화림원(華林園)은 길이와 넓이가 일백유순이고 대중들이 그 속에 가득 차서 첫 번째 설법에 96억 사람들이 아라한과를 얻고, 두 번째 설법에 94억 사람들이 아라한과를 얻고, 세 번째 설법에 92억 사람들이 아라한과를 얻으리라…….³²⁾

그때 부처님께서 열여덟 가지 신통을 나투어 ‘몸 아래에서는 마니 구슬처럼 보이는 물이 나와서 광명이 크게 변하여 시방세계를 비치며, 몸 위로는 불이 나와 수미산처럼 높이 솟고 불에서 자금색의 광명이 흘러나와 허공 가운데 가득할 것인데, 이것이 다시 유리로 변하며, 이와 같이 큰 몸이 다시 작게 변하여 겨자씨만 하다가 아주 보이지 않게 되느리라. 또 부처님의 몸은 시방세계에 나타났다 없어졌다…….³³⁾

즉, 미륵이 성도 후 화림원에서 3회 설법을 하는 장면을 삼륜대좌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의산 미륵사지의 삼금당이 용화 3회 설법을 상징하는 구조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도27). 또한 “身下出

32) 구마라집 역, 『佛說彌勒下生經』. “爾時彌勒佛於華林園，其園縱廣，一百由旬，大眾滿中，初會說法，九十六億人得阿羅漢，第二大會說法，九十四億人得阿羅漢，第三大會說法，九十二億人得阿羅漢…….”

33) 구마라집 역, 『佛說彌勒大成佛經』. “當入城時，佛現八十種神足，身下出水，如摩尼珠。化成光臺照十方界。身上出火，如須彌山流紫金光。現大滿空化成琉璃。大復現小如芥子許，泯然不現。於十方踊於十方沒…….”

水. 如 摩尼珠. 化成 光臺照 十方界,” 즉 미륵이 앉아 있는 대좌 밑에서 마니보주 같은 물이 나와 대좌를 받친다는 내용 가운데 몸 아래에서 나온 마니보주를 3층 대좌로 형상화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과 삼륜대좌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사례로서 3회 설법이나 설법 이후의 신통력을 삼륜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V. 맷음말

이상으로 경주 남산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을 중심으로 특징과 제작 시기, 도상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용장사는 명문 기와를 통해 ‘용장사’의 명칭이 확인되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통일신라시대 8세기 중엽 경의 중요 사찰이다. 이 석조여래좌상은 비례라든지, 승각기 띠매듭, 가사끈, 오른쪽 무릎 앞의 역삼각형 대의 자락 그리고 상현좌 등을 8세기의 명문 불상들과 비교함으로써 8세기 중엽경의 작품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균일한 크기로 중첩되는 연꽃대좌의 모습은 그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772년으로 추정하는 관룡사 약사전 석조여래좌상 대좌와 비교된다. 오른손을 위로 펴서 아랫배 앞에 올려놓고 왼손은 왼쪽 무릎에 살짝 올려놓은 수인이라든지 상현좌의 늘어진 옷 주름 표현 역시 중국 당대 7~8세기의 작품과 비교되어 제작 시기를 참고할 수 있다. 불상이 만들어진 8세기 중엽경에 대한 추정은 『삼국유사』 권4 「의해」 제5〈현유가, 해화엄〉조에 등장하는 경덕왕대의 문헌기록과도 합치된다.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의 독특한 특징은 불상을 반치고 있는 마치 3개로 이루어진 바퀴 같은 형상의 삼륜대좌이다. 이와 같은 대좌 형식은 우리나라에는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볼 수 없는 유일한 사례이다. 이에 대해 부족하나마 『불설미륵하생경』의 화림원 용화 3회 설법이라든지 『불설미륵대성불경』에 등장하는 마니보주의 모습을 형상화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았다. 이는 하나의 제시 차원이지만 앞으로 좀 더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석조여래좌상의 존명은 미륵여래상으로 보았는데, 이는 『삼국유사』 권4 「의해」 제5〈현유가, 해화엄〉조에 기록된 유가계 승려 태현과 관련된 미륵장육상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은 문헌기록과 양식 및 도상 등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기준작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은 앞으로 보존 및 복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보존 문제로 석조여래좌상의 앞면과 뒷면에는 이끼류가 몇 겹으로 덮여 있어 세부 옷 주름이나 표현 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끼류의 백화현상으로 무릎 위에 올려놓은 왼손의 경우처럼 시멘트를 빌라놓은 듯이 보이는 곳이 많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이끼류 기생에 대한 대책은 시급한 문제로 여겨진다. 앞으로 더 방치한다면 옷 주름이 떨어져 나가는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음으로 복원 문제인데 3층으로 이루어진 석조여래좌상의 대좌는 1924년 복원 당시 기록에 따르면 최소 2-3회 정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웠다. 이 과정에서 원형에 대한 검토 없이 대좌의 판석과 몸돌이 뒤집혀서 복원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은 8세기 중엽경에 제작된 매우 독특한 대좌 형식과 수려한 조형을 갖춘 통일신라시대 미의식을 대변하는 미륵여래상이다. 앞으로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의 보존처리는 매우 시급한 문제로서 원형에 대한 복원과 관련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사서 및 경전

『慶州邑誌』, 『東京雜記』, 『佛說彌勒下生經』, 『佛說彌勒下生大成佛經』,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梅山先生文集』.

2. 단행본 및 보고서

- 姜友邦,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6.
_____, 『法空과 莊嚴』. 열화당, 2000.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 考古美術同人會, 1968.
곽동석, 『KOREAN Art Book-금동불』. 예경, 2000.
郭丞勳, 『統一新羅時代의 政治變動과 佛教』. 國學資料院, 2002.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慶州南山II-精密學術調查報告書』. 2005.
國立文化財研究所, 『慶州南山의 佛教遺蹟II-西南山 寺址調查報告書』. 1997.
金理那,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1997.
金理那 외, 『한국불교미술사』. 미진사, 2011
金福順, 『한국 고대불교사 연구』. 民族社, 2002.
金三龍, 『韓國彌勒信仰의 研究』. 同和出版社, 1983.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慶州南山의 佛教遺蹟-塔 및 塔材調查報告書』.
1992.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
남도II』. 2010.
佛教文化研究院, 『韓國彌勒思想研究』.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7.
松廣寺 聖寶博物館, 『國寶 第42號 松廣寺 普照國師 木造三尊佛龕』. 2001.
정규홍, 『석조문화재 그 수난의 역사』. 학연문화사, 2007.
秦弘燮, 『韓國의 佛像』. 一志社, 1992.
_____, 『韓國美術史資料集成(1)』. 一志社, 2000.
최성은, 『석불 돌에 새긴 정토의 꿈』. 한길아트, 2003.
黃壽永, 『黃壽永全集 4』. 혜안, 1999.
朝鮮總督府, 『慶州南山の佛蹟』. 悅話堂, 1994.

3. 도록

- 國立慶州博物館, 『慶州南山特別展圖錄』. 1995.
_____, 『국립경주박물관 - 명품100선』. 2007.
奈良國立博物館, 『特別展 東アジアの仏たち』. 1996.

國立故宮博物院, 『雕塑別藏: 宗教編特別展圖錄』. 1997.

李再鈴, 『中國佛教雕塑』. 國立歷史博物館, 1997.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中國美術全集-雕塑編 13』. 文物出版社, 1989.

4. 논문

姜友邦, 「慶州 南山論」.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6.

_____, 「印度의 比例理論과 石窟庵 比例體系에의 適用과 試論」. 『法空과 莊嚴』, 열화당, 2000.

金理那, 「統一新羅時代의 降魔觸地印佛坐像」.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金福順, 「8·9세기 신라 瑜伽系 佛教」. 『韓國古代史研究-8·9세기의 신라와 발해』, 한국고대사연구회, 1992.

金煥遂, 「五教 兩宗에 대하여」. 『진단학보』 8, 1937.

金煥太,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教法研究」. 『佛教學報』 9, 1972.

文明大, 「太賢과 茱長寺의 佛教彫刻」. 『白山學報』 17, 1974.

_____, 「新羅 法相宗의 成立과 그 美術(下)」. 『歷史學報』 63, 1975.

李基白, 「眞表의 彌勒信仰」. 『新羅思想史研究』, 一潮閣, 1986.

李丞勳, 「下代 前·後期의 政治變動과 彌勒下生信仰」. 『統一新羅時代의 政治變動과 佛教』, 國學資料院, 2002.

陳明達, 「北朝晚期的重要石窟藝術」. 『中國美術全集』, 文物出版社, 1989.

국문요약

용장사지는 경주 남산 금오봉 정상 가까이에 위치한 곳으로 『삼국유사』 권4 「의해」 제5 〈현유가, 해화엄〉조에 처음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통일신라 경덕왕대(재위 742-765)의 승려 태현과 미륵장육상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사찰로 유명하다. 특히, 용장사지의 불상 중 석조여래좌상은 독특한 수인과 대좌 형식, 기록에 언급된 장육미륵상 등으로 연구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을 중심으로 특징과 제작 시기, 도상과 복원 문제에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석조여래좌상의 비례라든지, 승각기 띠매듭, 가사끈, 오른쪽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역삼각형 대의 자락 그리고 상현좌 등을 통해, 8세기 불상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인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양식적 특징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무릎 앞으로 늘어진 역삼각형 대의 자락은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8세기 후반 이후의 경주 남산 삼릉계 불상들의 시원적 특징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여래상이 앉아 있는 대좌를 덮은 상현좌의 치맛자락은 통일신라시대 7세기나 8세기 전반기의 상현좌와는 다르며, 이러한 상현 좌는 중국 당대 8세기 전반기 작으로 추정되는 금강봉사와 송광사 소장 목조불감 본존불의 양쪽 무릎에 흘러내리는 상현좌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7세기에서 8세기 전반기에 보이는 표현과는 달리 새롭게 수용된 양식적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의 실제 접은 듯 부드럽고, 사실적이면서 자연스러운 옷 주름의 표현 등으로 볼 때 제작 시기는 통일신라 경덕왕대인 8세기 중엽으로 볼 수 있다.

도상으로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미륵여래로 추정하였다. 그 특징으로는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의 좌우가 바뀐 수인과 3층으로 형성된 대좌 형식인데, 수인의 경우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비슷한 수인이 서위대 부터 등장하여 당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미륵여래상에 차용될 수 있는 수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륵여래상의 도상적 근거로서 『불설미륵하생경』, 『불설미륵대성불경』의 화림원 용화 3회 설법과 용화 3회 설법 후 시두말성(翅膀末城)에서 여덟 가지 신통력을 보이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삼국유사』 권4 「의해」 제5 〈현유

가, 해화엄조에 기록된 경덕왕대 유가계 승려 태현과 관련된 미륵장육상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용장사지 석조여래좌상은 미륵여래상으로 볼 수 있고, 양식적인 면에서는 8세기 전반기의 특징을 이어오면서 새롭게 유입된 표현 기법을 수용한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투고일 2014. 3. 20.

심사일 2014. 4. 28.

개재 확정일 2014. 6. 3.

주제어(Keyword) 용장사(葦長寺, Yongjangs temple), 미륵(彌勒, Maitreya), 도상(圖像, Iconography), 태현(太賢, Taehyeon), 8세기(8世紀, The 8th century), 경주 남산(慶州 南山, Mt. Namsan in Gyeongju), 삼륜대좌(三輪臺座, three-leaves pedestal)

Abstracts

A Study on the Seated Stone Buddha in Yongjang Temple Site, Gyeongju Lee, Heui-jin

Yongjang temple site, located nearby the peak of Geumbobong, Mt. Namsan in Gyeongju is first appealed on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volume 4 〈E-hae〉, No. 5 〈Hyeunyuga, Haehwaum〉. Accordingly, the monk Taehyeon who was believed to existed under the rule of King Gyeongdeok(Unified Silla Period, 742~765) and Mireukjangyuk statue had been shown at this temple. The most representative features of this three-leaves seated stone Buddha are the hand mudra, seat types and recorded Jangyukmireuk statues. This work therefore highlights the features, original production date, iconography and the reconstruction of this seated stone Buddha.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ddha such as the proportion, garment fold, and decorative patterns of sacerdotal robes, and inverted triangle robes which cover under the right knees, this Buddha sustained the typical features of the 7th century but it holds more soft and natural points. Also the garments which totally draw under the right knee and the robes cover all the seats(Sanghyeonjwa), in the mean time, show the typology of 8th century Buddhas.

Particularly the inverted triangle garments had been appealed from the Buddha sculpture of Yongjang temple which can be presumed the origin of late 8th century over the Mt. Namsan. The robes cover the total seat(Sanghyeonjwa) is different from the ones of 7th to early 8th century Buddhas but this type can be traced from the wooden sculptures of Geumgangbong Temple and Songgwang Temple which seemed to be produced around 8th century of Tang Dynasty. Therefore this sculpture of Buddha had been related to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Hyeunyuga, Haehwaum〉 and its monk Taehyeon. To a certain extent, it had been made in the middle 8th century. In terms of the iconography, it can be assumed as the Mireuk statue, which appealed in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Main features are the reversed hand mudra and three level seats. The mudra, compared to the ones from the China, seemed to be used since West-Wi to Tang Dynasty, and also it can be replaced with the ones of Mireuk Buddha. The clues of Mireuk statues are based on the three times sermons at the Hwarimwon Yonghwa recorded on the *Bulseol Mireuk Hasaengkyeong*, *Bulseol Mireuk Daeseong Bulkyeong*. After the three sermons, eight supernatural powers according to the records support the theory of Mireuk statue. Given that the religion of Mireuk had just appealed in the Unified Silla which had no certain iconographical understanding of the Mireuk Buddha, this hypothesis is quite concrete idea.